교사 선발기준 대폭 강화

2009년부터 이수과목 늘고 성적 미달 땐 자격증 안줘

임용시험도 3단계로

2009년부터 교사되기가 크게 까다로워진다. 교원이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이 늘고, 졸업 평균 성적기준이 마련되는 가 하면 교원임용시험제도가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된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는 최근 조선대에서 '교원양성제도의 향후 변화와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개편'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열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고 논의를 가졌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용 과장이 이날 발표한 '교원양성·선발체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신규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을 규정하는 '신규 교사 자격기준'이 마련되고 ▲교사양성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의 최소기준이 제시되며 ▲재학 중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교직 과목에 '교직실무'(2학점),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등 '교직소양 과목'(4학점)이 신설되고, 교육실습도 현행 2학점에서 4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원자격증 부여의 성적 기준은 졸업시 평균 75점(C학점)으로 정해졌다.

또 2009년부터 지필고사 중심 2단계로 치러지고 있는 임용선발 시험제도가 논술·심층면접·수업실기 등으로 이뤄진 3단계 평가로 강화된다. 2010년까지 '교원전문대학원'의 도입 여부가 결정되고 '평가인정제'가 도입된다.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2009년 대학 입학자부터 이수학점 증가와 성적 기준에 영향을 받고, 2009년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3단계 선발을 적용받는다.

세미나를 유치한 허 정 조선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육대학원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 기능과 연수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성삼 회장은 "특위를 구성해 평가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제기준을 참조할 경우 교육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광주교총 나규동 회장은 "자격갱신제 등 교사들을 걸러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들이 포함된다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대 사범대 학생회 김유리(21·가정교육과 3년) 부회장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너무 많아지는 폐단을 낳은 잘못된 교원수급체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회장 주기권)는 16일 오후 2시 광주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신상규 광주지검 검사장·류봉식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안순일 광주시교육감·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갖고, 우수지구협의회 등을 표창했다. 〈포상자 명단 20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지법 영장기각·법정구속 증가

불구속 재판과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광주지방법원의 영장기각과 법정구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처리한 2천71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633건을 기각, 23.3%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광주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2003년 12.4% ▲2004년 14.5% ▲2005년 15.7% ▲2006년 21.1%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점차 강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법원 측은 보고 있다.

또 법정구속 인원도 2005년 9월1일~2006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7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8월31일까지 1년 사이 23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내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시행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소년 정신질환 3년새 43%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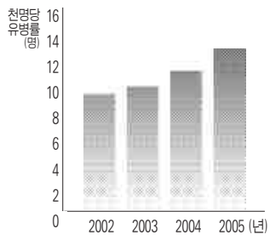
1천명 당 14.7명

청소년의 정신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청소년 정신질환 발생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 당 2002년 10.3명이었던 10~19세 정신질환 발생률이 2005년 14.7명으로 42.7% 증가했다. 〈표〉

청소년의 신경증적 스트레스도 인구 1천 명 당 2002년 3.4명에서 2005년 4.3명으로 늘었다. 정서장애 발생은 인구 1천 명 당 2002년 2.6명에서 2005년 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 당 2001년 5.4명에서 2005년 7.6명으로 40.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발생 추이



청소년, 학교 이탈 매년 늘어

광주·전남 지난해 4,012명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유학이나 이민, 전출 등으로 학교를 벗어나지만 복학률은 극히 낮아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 1천928명(전체의 0.73%) ▲전남 2천84명(0.72%) 등 모두 4천14명이 학교를 이탈했다. 〈표〉

전국적으로는 7만762명(전체의 0.92%)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했으며 ▲2004년 5만4천994명 ▲2005년 5만7천148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학교이탈 청소년의 이유를 살펴보면 ▲유학·이민:광주 369명, 전남 171명 ▲관내 전출:광주 1만3천320명, 전남 1만14명 등이다. 관내 전출 학생 수는 시·도내권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뜻하는 수치로, 학교폭력·왕따 등의 이유가 포함돼 있다.

반면 학업이탈 청소년의 수에 비해 광주의 복학률은 25.9%(499명), 전남은 524명(25.1%)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광주의 경우 전체 479명의 학업이탈자 중 9.5%인 단 45명만 복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이탈률 역시 1만5천675명 중 3.1%로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학업이탈 청소년 현황 (단위:명, %)

시 도	학업이탈	이탈율	복학	복학율	유학·이민	유학·이민율	관내전출	전출율	전체학생수
광주	1,928	0.73	499	25.88	369	0.14	13,320	5.02	265,313
전남	2,084	0.72	524	25.14	171	0.06	10,014	3.45	290,343
전국	70,762	0.92	24,561	34.71	22,371	0.29	315,822	4.09	7,726,676

성폭력범 '전자팔찌' 첫 공개

아동 대상, 또는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워 행적을 추적,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사진)가 처음 공개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팔찌는 인권 문제 등을 감안, 애초 손목시계 모양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전자팔찌는 풀 수 없으며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착용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와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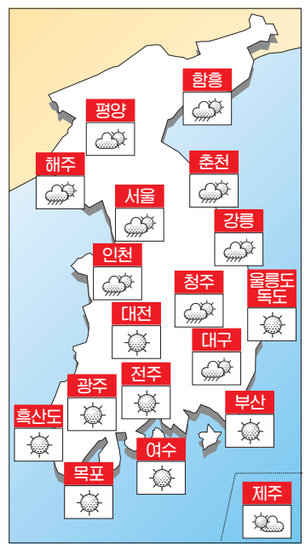
아침 찬바람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 많겠다.

10월 17일 (음 9월 7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9~20℃
목 포	구름 조금	11~20℃
여 수	구름 조금	14~20℃
완 도	구름 조금	10~20℃
구 례	구름 조금	8~21℃
해 남	구름 조금	6~21℃
장 흥	구름 조금	7~21℃
고 흥	구름 조금	9~22℃
순 천	구름 조금	7~21℃
영 광	구름 조금	9~20℃
진 도	구름 조금	9~20℃
전 주	구름 조금	8~20℃
남 원	구름 조금	5~21℃
흑산도	구름 조금	15~1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5:07 17:53 썰물 〈 10:15 22:59
여 수 밀물 〈 12:03 23:52 썰물 〈 05:16 18:08
▲해뜸 06:39 ▲해짐 17:56 ▲달뜸 12:12 ▲달짐 21: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날 씨						
최저/최고	8/21	10/17	7/15	8/19	9/20	9/20

규칙적 운동하면 국가 年 16조원 경제효과

취업 유발 11만명 넘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등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성인들이 모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연간 46만원, 국가 전체적으로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16일 밝혔다.

체육활동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당뇨병·뇌졸중·관상동맥질환·심부전증·골다공증·우울증 등 주요 질병 발병률이 최소 5%에서 최대 16%까지 떨어지고,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도 연간 0.3~1.5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체육활동 자체가 연간 4조8천27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체육활동으로 매월 11만1천710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전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한다면 연간 취업 유발 인원은 11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설문 응답자들은 체육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월 평균 79만4천800원에 달한다고 답해 체육활동의 지출 대비 수입률(심리적 효과 포함)은 7배나 됐다. /연합뉴스

영화배우 권상우씨 강제로 법정에 세운다

영화배우 권상우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매니저의 공판에 강제구인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권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던 전 매니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권씨를 강제구인해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씨는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번에 걸친 소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출석지 않아 재판부는 강제구인키로 했다.

권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의 선처를 바라고 백씨가 1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술을 바꿔 "백씨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연합뉴스